

윤치왕의 생애와 의료 활동

박형우*# 홍정원# 박윤재#*

머리말

개항 이후 서양의학이 본격적으로 소개되면서 한국의 의학체제는 전면적인 변화를 겪기 시작하였다. 서양의학은 한국의 전통의학이었던 한의학과는 의학이론, 진료방식, 의료제도 등 모든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조선정부는 서양의학의 효율성에 주목하면서 도입을 가속화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¹⁾ 개항 이후 설립된 대표적인 의학교육기관인 제중원의학교, (관립)의학교에서 모두 서양의학을 교수했다는 사실은 한국에서 서양의학의 영향력이 강화되어나갈 것임을 시사하고 있었다. 나아가 식민 지배는 한의학을 서양의학에 종속되는 부차적인 의학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경향성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1980년대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한 한국 서양의학 수용사 연구는 한국 의학의 기원을 탐구한다는 의미에서 필요한 작업이었다.²⁾ 수용의 문제를



윤치왕

(1929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졸업앨범)

천착하는 가운데 주목의 대상이 된 소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와학과 † 교신저자

- 1) 한국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제중원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보인 조선정부의 관심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박형우, 제중원, 몸과마음; 2002, 39-76.
- 2) 李萬烈, 韓末 美國系 醫療宣敎를 통한 西洋醫學의 受容, 國史館論叢 1989; 3. 金亨錫, 韓末 韓國人에 의한 西洋醫學 受容, 國史館論叢 1989; 5. 金承台, 日本을 통한 西洋醫學의 受容과 그 性格, 國史館論叢 1989; 6. 趙英烈, 西歐 諸國을 통한 西洋醫學의 受容, 國史館論叢 1989; 9.

재 중 하나는 서양의학을 한국에 소개한 인물들이었다. 구체적으로, 제중원, 세브란스로 이어지는 사립 의학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한 의료선교사, (관립)의학교로 대표되는 관립 의학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주도한 의료인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³⁾ 이들 연구는 실증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에 서양의학이 도입된 경로와 방식 등을 밝힘으로써 한국에 근대적 의학체계가 형성되는 초창기의 모습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이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서양의학 수용의 문제를 외부의 시각에서 살펴보는데 주력함으로써 그 의학을 수용한 한국 내부의 조건이 충분히 분석되지 않았다. 서양의학이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의학이 발전하기 위해서 외부의 충격과 전달 못지않게 내부의 요구와 필요 역시 중요했다. 서양의학 수용에 대한 종합적인 서술을 위해서는 수용 주체에 대한 천착이 필요한 것이다. 인물사 연구와 관련하여 불 때 서양의학 전달자를 넘어서, 그 의학 수용의 초기 세대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⁴⁾

1925년 영국 글래스고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후 의학교육자이자 의료행정가로 활동한 윤치왕(尹致旺, 1895-1982)에 대한 이 글은 그 시도의 하나이다. 특히 윤치왕에게서 보이는 영국 유학을 통한 서양의학 학습, 사립과 관립기관을 넘어서는 활동 경력, 군의관이라는 행정 경험 등은 서양의학 수용의 초기 세대들이 일반적으로 가지지 못한 독특한 모습이었다. 즉, 윤치왕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 서양의학이 수용되는 과정을 보다 풍부화시킬 수 있는 한 사례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1. 초기 교육

남포 윤치왕(南圃 尹致旺)⁵⁾은 1895년(을미) 2월 16일 부친 윤웅렬(尹雄烈)과 모친 김정순(金貞淳) 사이에서 3남 중 차남으로 출생했다.⁶⁾ 그가 태어난 곳은 종로구 견지동(堅志洞) 68번지였는데,⁷⁾ 조선시대 삼의사 중 하나였던 전의감(典醫監)이 있었기에 흔히 전동(典洞)이라 불리었다. 윤치왕은 노령이신 아버님에 의해 12살이 되던 1906년 부친의 친구 이희덕(李熙惠)의 딸 이모임(李慕姪)과 결혼하였다.⁸⁾ 1912년 9월에 장녀 선희(善姬)가 출생

3) 閔庚培. 알렌의 宣敎와 近代韓美外交. 延世大學校 出版部; 1991. 이광린. 올리버 알 예비슨의 생애.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2. 대한의사학회. 松村 池錫永. 아카데미아; 1994.

4) 2000년 이후 『醫史學』에 발표된 연구들은 아래와 같다. 황상익. 의사로서의 상허 유석창(常虛 劉錫稔). 醫史學 2000; 9:92-111. 김영경·박형우·노재훈. 제중원의학당 입학생의 신분과 사회진출. 醫史學 2001;10:60-70. 이규식. 유일준의 생애와 학문. 醫史學 2003;12:1-12. 이규식. 양정필·여인석. 최동의 생애와 학문. 醫史學 2004;13:284-296. 신영전·윤효정. 보건운동가로서 춘곡 양봉근(春谷 楊奉根, 1897-1982)의 생애. 醫史學 2005;14:1-31. 박운재. 김창세 생애와 공중위생 활동. 醫史學 2006;15:211-225. 박형우·홍정완. 박서양(朴瑞陽)의 의료활동과 독립운동. 醫史學 2006;15:237-250. 이방원. 박 에스더(1877-1910)의 생애와 의료선교활동. 醫史學 2007;16:193-213. 박형우·홍정완. 주현측(朱賢則)의 생애와 활동. 醫史學 2008;17:87-98.

5) 윤치왕의 일생에 관한 글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내가 걸어온 길 - 南圃 尹致旺 박사, 후생일보(1977년 2월 26일 <2416호>, 3월 5일<2419호>, 15일<2423호>, 22일<2426호>, 29일<2429호>, 4월 5일<2432호>, 12일<2435호>, 19일<2438호>, 26일<2441호>, 5월 3일<2444호>, 10일<2447호>, 5월 17일<2450호>, 24일<2453호>, 5월 31일<2456호>, 6월 7일<2459호>, 7월 5일, 12일 등).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南圃 尹致旺 박사가 回顧하는 仁術따라 風流 60年. 엠디, 종근당(1980년 11월호, 20-22쪽; 1981년 1월호 32-33쪽; 3월호 20-21쪽; 5월호 20-21쪽). 이외에 정구충의 글도 있다. 鄭求忠: 남포 윤치왕(南圃 尹致旺). 韓國 醫學의 開拓者(I). 東方圖書株式會社, 서울, 1985, 644-649쪽.

6) 윤치왕의 생년월일에 대해 1895년 2월 10일(정구충, 앞의 책, 644쪽), 1895년 2월 17일(『해평윤씨대동보』 권삼, 1983, 611쪽) 등이 언급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그의 제적등본과 육군본부의 『장교자력표』에 의거하여 1895년 2월 16일로 파악하였다. 윤치왕의 형은 개화기의 유명한 좌옹 윤치호(佐翁 尹致昊)이며, 동생은 이승만 정권기 터키 대사를 역임한 윤치창(尹致昌)이다.

7) 윤치왕의 본적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순화동 195번지였다. 윤치왕의 제적등본 참조.

8) 윤치왕의 제적 등본; 南圃 尹致旺 박사, 내가 걸어온 길<1>. 후생일보 1977년 2월 26일 13면.

하였고, 윤치왕이 영국으로부터 귀국한 후 1932년 장남 도선(叢善), 1934년 차남 훈선(蒸善) 그리고 1936년 삼남 연선(然善)이 차례로 출생하였다.

윤치왕은 어려서 사택에 있는 서당에서 공부를 하다가 1906년 10월 형 윤치호가 미 남감리회의 도움으로 개성에 한영서원(韓英書院)⁹⁾을 설립하자 이 학교로 옮겨 공부를 하게 되었다. 이 학교는 소학교 수준이었지만 영어반이 있었다. 그곳에서 3년 동안 수학한 윤치왕은 서울 기독교청년회관의 중학교 일어 과정에 입학하여 1910년 6월 일어후과(日語後科)를 졸업하였다.¹⁰⁾ 이어 1911년 3월 관립 수원농림학교¹¹⁾에 입학하였다. 당시 40명 모집에 무려 4백여 명이 몰려 10대 1이라는 치열한 입학 경쟁을 거쳤는데, 모든 학비는 관급이었고 학생에게는 매달 5원을 주었다. 선생은 모두 일본인이었고 3년의 과정을 마치면 판임관(判任官)으로 채용될 수 있었고 일본의 고농이나 고상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되었다.¹²⁾

2. 중국 망명

윤치호가 1911년 소위 105인 사건으로 투옥되자 형의 투옥에 충격을 받은 윤치왕은 일본인을 한국에서 몰아내는 데에는 무력 밖에 없다고 판

단하고 중국의 사관학교에 입학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윤치왕은 1912년 수원농림학교를 자퇴하였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중국으로 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행히 평안북도가 고향인 동급생 반장이 압록강을 건너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몰래 알려주었고, 이에 용기를 얻은 윤치왕은 중국으로 갈 준비를 하였다.¹³⁾ 1913년 9월 선친의 대상(大喪)을 끝낸 윤치왕은 당시 쌀 한 가마에 3~4원인 상황에서 거금 2천원을 전대에 넣어 허리에 두르고 기차를 타고 신의주에 도착했다. 다행히 그곳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만나 압록강 철교를 건너 중국으로 들어갔고, 다시 한국인의 도움을 받아 봉천을 통해 북경에 도착하였다.

윤치왕은 봉천의 한인들로부터 소개받은 한진교(韓鎭敎)¹⁴⁾라는 사람이 차린 이발소를 찾아 갔다. 한진교는 자기 집보다 다른 곳이 더 안전할 것이라며 김규식에게 부탁하여 미국인이 운영하는 장로교회 안의 연합신학교 기숙사에 머물게 되었다.¹⁵⁾ 일단 미국인의 치외법권 혜택을 받아 신변 안전이 확보된 윤치왕은 원세개의 고문 중의 한 사람이었던 모리슨 박사가 중국어를 익히면 중국 사관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자, 중국어 선생을 고빙해 하루 5시간씩

9) 한영서원은 개성 송악산 기슭의 산지현에서 1906년 10월 3일 개원하여 1917년 4월 1일 송도고등보통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후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개성을 떠나 남쪽으로 피난했는데, 1952년 인천시 중구 송학동의 판잣집에서 피난 학생 500여명으로 송도고등학교로 학교를 다시 열었다.

10) 靑館卒業. 皇城新聞 1910년 6월 21일자 1면 5단.

11) 수원농림학교는 1904년 9월 서울에서 농상공학교로 개교했는데, 1906년 9월 농상공학교가 농과와 농림학교로 분리 독립되었고 1907년 1월 수원으로 이전하였다. 농림학교는 1918년 3월 3년제의 수원농림전문학교로 개편되었고, 1922년 3월 수원고등농림학교로 교명이 바뀌었다.

12) 南圃 尹致旺 박사, 내가 걸어온 길<1>. 후생일보 1977년 2월 26일 13면.

13)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南圃 尹致旺 박사가 回顧하는 仁術따라 風流 60年. 엠디, 종근당, 1980년 11월호, 20-21쪽.

14) 중국에서 만난 선친 출신의 청년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다. 한진교는 1887년 1월 16일 출생했으며, 본적은 平安南道 中和郡 楓洞面 綾盛里 303이다. 그는 1901년 상해로 건너갔으며, 상해 프랑스조계 라비덕로(辣斐德路) 423 제성당(諸聖堂)에 해송양행(海松洋行)을 설립했다. 약제업을 하면서 얻은 상당한 자산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헌납하였다. 이 회사는 미국, 만주, 조선 각지의 독립운동가들의 연락처로 이용되었다. 그는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해 임시의정원 의원이 되어 입법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신한청년당을 조직해 청년운동도 겸하였다. 1977년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國外ニ於ケル容疑朝鮮人名簿. 朝鮮總督府 警務局, 1934, 21쪽.

15)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南圃 尹致旺 박사가 回顧하는 仁術따라 風流 60年. 엠디, 종근당, 1980년 11월호, 21-22쪽.

열심히 중국어를 배웠다. 덕분에 6개월 만에 쉬운 중국어 회화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다.¹⁶⁾ 또한 세례를 받고 기독교 신자가 되었으며, 신규식,¹⁷⁾ 유동렬 등 여러 선배 망명자들의 지도도 받았다. 그러나 윤치왕은 사관학교에 들어갈 한국인은 많으니 영국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권하는 김규식의 제의를 받아들였다.¹⁸⁾

윤치왕이 영국 유학 준비를 위해 1914년 3월 서울에 돌아와 보니 윤치호는 대구고등법원에서 형을 언도받고 복역 중이었고, 집에는 어머니와 부인뿐이었다. 윤치왕은 김규식의 편지를 언더우드에게 전했다.¹⁹⁾ 언더우드는 김규식의 양아버지였고, 윤치호와도 절친한 사이였다. 언더우드는 윤치왕이 영국으로 유학을 간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형이 설립한 언더우드 타이프라이터 회사의 런던 지점에 연락을 해 주고 주소도 가르쳐 주었다. 이후 그의 모든 학비는 이 회사의 런던 지점을 통해 조달할 수 있었다.²⁰⁾

3. 영국 유학

1914년 4월 초 윤치왕은 칭타오(靑島)에서 독일 상선을 타고 40일 동안의 긴 항해 끝에 영국 남쪽의 사우샘프턴(Southampton) 항에 도착하였다. 윤치왕은 우선 언더우드 타이프라이터 회사의 런던 지점을 찾아가 지점장으로부터 많은 도

움을 받았다. 이어 윤치왕은 버밍햄(Birmingham) 교외의 셀리옥(Selly Oak)에서 영어를 개인교습 받으면서 중등학교의 과정을 배웠다.²¹⁾

윤치왕은 1919년 3월 영국 글래스고대학교 의학부(University of Glasgow, Faculty of Medicine)에 입학하였다.²²⁾ 당시 한 반은 3백 명 정도였는데, 중국인을 비롯해 10여명의 외국인이 있었고 여학생도 50여명이 있었다. 그러나 어려운 시험을 거치는 동안 탈락되어 반 정도만 졸업할 수 있었다. 수업 연한은 5년이었고 인턴이나 레지던트 제도는 없었지만, 3학년이 되면 매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엄격한 임상 실습을 받아야 했다.

당시 부속병원은 약 1천명의 환자를 수용하는 3개의 병원이었고, 이곳에서 학생들이 실습과 견학을 하였다. 또 인근 지역의 산원에서 학생 2명이 한 조가 되어 주야간 근무하면서 정상 분만을 실습했는데, 한 해에 20여명 이상의 신생아를 손수 받아야 졸업할 수 있었다. 만일 수혈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시켜야 했다.

윤치왕도 산원에 나가 신생아를 받으려 했지만 동양인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화가 난 윤치왕은 이를 포기하고 방학을 이용해 하숙을 하면서 아일랜드계 산원에서 50여명의 신생아를 받았

16) 南圃 尹致旺 박사, 내가 걸어온 길<1>. 후생일보 1977년 3월 5일 11면.

17) 신규식(申圭植)은 본적이 충청북도 청원이며, 1880년 1월 13일 출생하였다. 1896년 4월 20일 한어학교(漢語學校)에 입학하여 3년 동안 수학한 후 1900년 9월 14일 무관학도(武官學徒)로 피선되어 1903년 9월 20일 졸업하였다. 졸업 후 군에서 참위를 거쳐 부위가 되었으나,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지방 군대에 연락하여 의거를 하려다가 기밀이 누설되어 실패하고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신규식은 1911년 11월 중국에 건너가 동맹회(同盟會)에 가입하고 손문의 신해혁명에 참가하였고 1912년 박은식, 신채호 등과 함께 동계회(同濟會)를 조직하였다.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법무총장에 선임되고, 1920년에는 국무총리 겸 외무총장으로 임명되었다. 1922년 8월 5일 사망하였다.

18) 南圃 尹致旺 박사, 내가 걸어온 길<2>. 후생일보 1977년 3월 5일 11면.

19) 南圃 尹致旺 박사, 내가 걸어온 길<3>. 후생일보 1977년 3월 15일 13면

20)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南圃 尹致旺 박사가回顧하는 仁術따라 風流 60年. 엠디, 종근당, 1980년 11월호, 22쪽.

21) 南圃 尹致旺 박사, 내가 걸어온 길<6>. 후생일보 1977년 4월 5일 11면. 당시 셀리옥은 많은 대학(주로 신학)들이 있는 교육도시였는데, 윤치왕이 어느 학교에서 중등과정을 배웠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22) 그의 주소는 Gordon 21, Granville Street, Glasgow이었다. 機密 제8호 런던在留 朝鮮人名. 1925년 6월 6일 茂垣長作(런던 총영사대리) 발송, 1925년 7월 6일 幣原喜重郎(외무대신) 수신.

고,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윤치왕은 영국의 빈민가나 각 지방의 특성 및 의식 구조를 알아 볼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²³⁾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유럽 여행을 하기 위해 윤치왕은 일본대사관으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았다.²⁴⁾ 당시 유럽에서 유학을 하는 한국인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윤치왕은 일본 첩보부의 감시 대상이었다. 윤치왕은 특별히 일본 첩보부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은 하지 않았고, 일본 첩보부는 그의 성향을 ‘보통’으로 파악하였다.²⁵⁾

윤치왕은 1925년 10월 글래스고대학 의학부를 졸업하여²⁶⁾ 의학사(Medicinae Baccalaureus, Chirurgiae Baccalaureus)의 학위를 받았고, 동시에 영국 의사면허증을 받았다. 그리고 왕립아동병원 정형외과의 외과의사(House Surgeon)²⁷⁾로 1년 여 동안 근무하던 중 윤치호로부터 빨리 귀국하여 민족을 위해 봉사하라는 긴 사연의 편지와 함께 여비가 배달되었다.²⁸⁾ 이에 윤치왕은 1927년 5월 21일 영국 글래스고 항을 떠나는 캐나다안 퍼시픽 회사(Canadian Pacific Company)의 기선인 몬트카암이라는 배를 타고 6일 후에 캐나다 몬트리올에 도착하였다. 이어 캐나다 온타리오의 해밀턴, 나이아가라를 경유하여 기차로 뉴욕, 워싱턴, 볼티모어를 거쳐 시카고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15일 후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호노룰

루, 동경을 거쳐 시모노세키 항에서 다시 부산항에 도착한 것이 8월 21일이었다.²⁹⁾

4. 귀국과 세브란스 교수 부임

어릴 적부터 외국에서 생활했던 윤치왕은 중국어, 일본어,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다. 또 영국에 있을 때 1년에 5천 원 정도를 갖다 썼기에 돈에 크게 구애 받지 않았고, 1922년과 1923년 7월 독일과 벨기에를 방문하기도 했다.³⁰⁾

윤치왕이 영국에서 공부할 때 윤치호는 편지를 쓸 때 마다 졸업 후 세브란스에서 일을 하라고 계속 권하였다. 이것은 윤씨 집안과 세브란스의 에비슨이 가졌던 오랜 인연 때문이었다.³¹⁾ 1893년 한국에 도착한 직후 에비슨은 윤용렬 장군을 소개 받았고, 자연스레 윤치호와 어린 윤치왕을 알게 되었다. 윤치호는 에비슨에 비해 5살 어렸으며, 세브란스후원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세브란스의 발전에 큰 관심을 보였다.

당시 총독부의 과장이나 국장의 월급이 칠, 팔십 원 정도에 불과했으니 세브란스의 당시 월급 2백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윤치왕의 성에는 차지 않았다. 그러나 월급의 다소를 문제삼을 때가 아니라는 형의 강권으로 1927년 11월부터 세브란스에서 강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³²⁾ 동시에 일본 의사면허를 교부받았는데, 먼

23)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南圃 尹致旺 박사가 回顧하는 仁術따라 風流 60年. 엠디, 종근당, 1981년 1월호 32-33쪽.

24) 南圃 尹致旺 박사, 내가 걸어온 길<7>. 후생일보 1977년 4월 12일 13면

25) 公機密 제7호 布哇鮮人僑民團 議事會 開會에 관한 건. 1925년 1월 30일 竹內駒治(호놀룰루 총영사대리) 발송, 1925년 2월 26일 幣原喜重郎(외무대신) 수신.

26) 南圃 尹致旺 박사, 내가 걸어온 길<6>. 후생일보 1977년 4월 5일 11면

27) 윤치호 일기 1926년 6월 9일자. 윤치호는 이를 “인턴(intern)”으로 썼다.

28) 인턴을 하면서 더욱 송금해달라는 요청이 잦아진 것도 윤치호가 귀국을 독촉하게 된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치호 일기 1927년 9월 13일자, 9월 14일자.

29) 在米同胞消息, 십오년만에 귀국한 尹致旺씨 歸國談. 동아일보 1927년 8월 22일자 2면 10단.; 十三年間 螢雪의 功. 尹致旺氏 錦衣還鄉. 조선일보 1927년 8월 22일자 석간 2면 7단.; 윤치호 일기 1927년 8월 21일자.

30) 南圃 尹致旺 박사, 내가 걸어온 길<7>. 후생일보 1977년 4월 12일 13면

31) Avison OR: Memoir of Life in Korea, 타자본, 1940, 157-166쪽. 동은의학박물관 소장.

32)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南圃 尹致旺 박사가 回顧하는 仁術따라 風流 60年. 엠디, 종근당, 1981년 1월호, 33쪽.

허 번호는 57940번이었다.³³⁾ 이것은 당시 일본이 남양군도, 만주국, 브라질, 영국 등과 협약이 되어 있어 상호 의사면허를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윤치왕의 첫 근무 부서는 외과였다. 그러나 당시 세브란스의 외과에는 러들로 과장 밑에 미국에서 유학을 마친 고명우, 이용설 등 모교 출신들이 있어 자신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생각하고 있던 윤치왕에게 학감으로 있던 오궁선이 산부인과 근무를 권했다.³⁴⁾ 당시 세브란스의 책임을 맡고 있던 에비슨은 윤치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³⁵⁾

한국으로 귀국한 그는 나에게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의 교수 자리를 요청해왔고, 산부인과 과장 허스트 박사의 조수로 그를 임명했다. 그는 곧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었고, 기독교적인 품성, 의학적 지식, 외과적 기술 및 교수 능력 등 필수적인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허스트 박사가 은퇴를 하여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의 뒤를 이어 산부인과의 교수로 임명하였다. 그의 성공은 이 기관의 책임자의 판단이 충분히 정당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윤치왕이 부임하기 전 세브란스의 산부인과에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자. 당시 산부인과에는 1904년 내한한 허스트 교수가 산부인과의 책임을 맡고 있다가 윤치왕이 부임하기 직전인 1923~4년도에는 1904년 이래 산부인과의 책임자로 활동하던 허스트가 안식년으로 자리를 비어

신필호가 산부인과의 책임을 맡았으며, 정동섭이 조수로 있었다.³⁶⁾ 이 해에 외래에서 2,006명의 환자를 보았고, 입원이 170명이었다. 큰 수술은 71건, 작은 수술은 43건으로 모두 114건의 수술을 했는데, 이 중에는 제왕절개수술도 있었다.

그러나 모교 졸업생 신필호 조교수가 1925년 개업을 하여 대를 이을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1925~6년도에는 정동석과 박용래가 조수로 허스트를 돕고 있었다.³⁷⁾ 이외에도 고병간, 임의식, 장우근 등이 산부인과에서 조수로 훈련을 받았다.³⁸⁾ 당시 산과학 강의는 3학년에 주당 1시간, 4학년에 2시간, 부인과학 강의는 3학년에 2시간, 4학년에 1시간이었다. 그리고 임상 강의는 4학년에 주당 2시간이었고, 산과 모형 실습은 4학년에 2시간 이상이었다. 외래환자 임상강의는 4학년에 있었으나 시간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윤치왕은 허스트 교수와 함께 산부인과의 조교수³⁹⁾로 근무하게 되면서 진료 및 강의 시간에 허스트의 통역을 전담하였다. 또한 첫 해에는 영어 강사도 하였다.⁴⁰⁾ 당시 윤치왕의 학술활동으로 1929년 2월 1일 오전 9시에 열린 세브란스의전 의학회에서 '질폐쇄의 치료'에 대해 발표하였고,⁴¹⁾ 그 해에 세브란스 의학구락부의 회장으로 활동하였다.⁴²⁾

33) 土屋義衛: 日本醫籍錄. 제17권, 醫事時論社, 1942년 3월 1일.

34) 南圃 尹致旺 박사, 내가 걸어온 길<10>. 후생일보 1977년 5월 3일;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南圃 尹致旺 박사가回顧하는 仁術따라 風流 60年. 엠디, 종근당, 1981년 3월호, 20쪽.

35) Avison OR: Memoir of Life in Korea, 타자본, 1940, 159쪽. 동은의학박물관 소장.

36)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Annual Report for Fiscal Year 1923-1924, 7쪽.

37) Catalogue.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1925-1926, 8쪽.

38) セブランス聯合醫學專門學校一覽, 1931년, 55쪽.

39) Activities of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and Severance Hospital 1927-28. Seoul Korea, 7쪽.

40) セブランス聯合醫學專門學校一覽, 1928, 39쪽.

41) 세브란스교우회보 11호, 1929, 81쪽.

42) 세브란스교우회보 12호, 1929, 72쪽.

5. 의학박사 학위 취득

윤치왕은 1930년 봄 산부인과 분야의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 약 3년 예정으로 다시 영국을 방문하였다.⁴³⁾ 토마스병원, 카이스병원, 그리고 에딘버러대학 의학부(University of Edinburgh, College of Medicine) 산부인과학교실의 존스톤 교수 밑에서 연수를 받던 윤치왕은 1931년 봄 급성 충수돌기염으로 수술을 받았고, 마침 집안의 다른 사정도 있어 4월 7일 귀국하였다.⁴⁴⁾ 돌아 온 윤치왕은 잠시 요양을 하면서, 완쾌되는 대로 다시 영국으로 가서 공부하기로 작정하였다.⁴⁵⁾ 윤치왕이 자리를 비운 사이 1회 졸업생 김필순의 장남 김영이 산부인과에서 수련을 받다가 1931년 봄 용정 제창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1931~2년도에는 산부인과에 허스트 교수와 윤치왕 조교수 그리고 김재홍 조수가 있었다.⁴⁶⁾

윤치왕은 귀국 직후 교우회보에 영국 개업의의 현황을 알리는 글을 발표하였다.⁴⁷⁾ 그리고 영국으로 떠나기 전인 1930년 2월 21일 조선인 의사들이 모여 만든 조선의사협회에 입회하였고 귀국 후 적극 참여하였다. 그리하여 1931년 9월 22일 개최된 제3회 조선의사협회 총회에서 경리부의 간사로 선임되었다.⁴⁸⁾ 1932년에는 ‘한국인의 월경 시작 연령’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조선의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잡지인 『조선의보』에 발표하였고,⁴⁹⁾

1933년에 3월 24일에 열린 세브란스의전 의학회에서는 ‘결핵과 임신’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⁵⁰⁾ 그는 1933년 교수로 승진하였다.

한편 1917년 의학전문학교로 승격된 세브란스는 1923년 조선총독부의 지정을 받아 졸업생들이 의사 시험이 없이 졸업시험만으로 조선에서 활동할 수 있는 면허증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아직도 차별이 있어, 일본이나 기타 식민지에서는 의사로 인정되지 않아 활동에 많은 지장이 있었다. 이에 교장 에비슨은 일본 문부성의 지정을 받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다. 다행히 설비는 갖추었지만, 교수 자격이 일본 문부성에서 인정하는 일본 학위의 소유자라야 했다.

세브란스가 일본 문부성 지정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윤치왕이 돌아온 것이었다. 미국에서 학위를 받았던 많은 교수들도 할 수 없이 일본의 의과대학에서 다시 학위를 받아야만 했다. 윤치왕은 영국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교토제국대학 산부인과학교실에서 학위를 받기로 하였다.⁵¹⁾ 그리하여 1933년 3월 28일 경성역을 떠나 교토(京都)로 갔다.⁵²⁾ 윤치왕은 오까바야시(岡林) 교수 밑에서 ‘각종 장기 압착액의 비경구적 투여가 당해장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연구를 하였다.⁵³⁾ 1934년에는 교토제국대학 산부인과에서 영문으로 발간하는 일본산

43) 세브란스교우회보 13호, 1930, 41쪽. 실제 출발은 1930년 6월 6일 오후 7시 20분이었다. 윤치호 일기 1930년 6월 6일자.

44) 윤치왕이 영국에 있는 동안 아들이 사망하였다. 1931년 1월 17일자, 3월 21일자.

45) 세브란스교우회보 15호, 1931, 14쪽.

46) 세브란스교우회보 15호, 1931, 8쪽.

47) 윤치왕: 英國 開業醫의 現況. 세브란스교우회보 제15호, 1931, 4-6쪽.

48) 그러나 1933년 3월 윤치왕이 교토제국대학으로 유학을 떠나자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의 이영준으로 교체되었다. 朝鮮醫師協會幹事及部署. 朝鮮醫報 2(4): 148, 1932.; 第4年第3回幹事會. 朝鮮醫報 3(2): 61, 1933.

49) 윤치왕: 朝鮮人の 月經 初潮 年齡. 朝鮮醫報 2(2): 48-49, 1932.

50) 世專醫學會. 論題는 結核. 동아일보 1933년 3월 24일자 2면 2단.

51) 南圃 尹致旺 박사, 내가 걸어온 길<10>. 후생일보 1977년 5월 10일

52) 세브란스교우회보 19호 1933, 23쪽.; 人事. 朝鮮醫報 3(1): 25, 1933.

53) 南圃 尹致旺 박사, 내가 걸어온 길<10>. 후생일보 1977년 5월 10일.

부인과잡지(Japanese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의 영문 교정을 맡았다. 윤치왕은 1936년 4월 귀국하였고, 제출한 학위 논문이 6월 1일 교수회의를 통과되어 8월 5일부로 일본 문부성으로부터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⁵⁴⁾

윤치왕이 세브란스의전 교실을 비운 사이 여러 변화가 있었다. 우선 1934년 4월 허스트가 정년으로 학교를 떠났고,⁵⁵⁾ 윤치왕이 귀국할 때까지 경성제국대학 산부인과의 이노우에(井上蕃)가 강사로서 강의를 맡았다. 그리고 김재홍(1933~5)과 조동협(1934~6), 변석화(1935년 2월 3일 현재) 등의 조수와 김관덕, 설경성(1936년 2월 1일 현재)이 부수로 근무하였다.

윤치왕이 돌아 왔을 때 강사 김재홍은 오카야마(岡山)의대에서 연구 중이었으며, 이후 교실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귀국 직후 윤치왕은 당시의 저명한 산부인과 의사였던 허신, 윤태권, 신필호 등과 함께 산욕열에 관한 종설⁵⁶⁾과 자간에 관한 종설⁵⁷⁾을 『조선의보』에 발표하였다. 또한 임신악조(妊娠惡阻)에 관한 좌담회를 주최하였다.⁵⁸⁾ 이외에도 대중잡지에도 여성, 결혼 및 이민 등을 주제로 글을 남기기도 했다.⁵⁹⁾

윤치왕은 1941년 4월부터 1942년 8월까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의 부속병원장을 맡았다. 윤치왕이 근무하던 1940년 당시 산부인과에는 설경성, 정진욱, 황정현 등이 조수로 있었으며, 1943년에는 강사 설경성, 정진욱과 3명의 조수, 2명의 부수가 있었다.⁶⁰⁾

윤치왕은 새문안교회에서 집사로 봉사했으며, 다양한 사회 활동을 했다. 자신이 유학했던 교토에 한국 아동들을 보육하는 향상관 보육원(向上館 保育院)의 운영비를 보조하였고 건축 기금을 모집하는데 진척이 없자 거금 3,500원을 회사하기도 했다.⁶¹⁾ 1937년 8월에는 국방헌금으로 500원을 기부하기도 했다.⁶²⁾

귀국 직후인 1928년경 유니버시티 클럽에 가입했는데, 이 클럽은 이름이 의미하듯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영어 회화가 가능한 사람들만 회원이 될 수 있었다. 회원은 대개 일본인 고위 관리였고, 한국 사람은 세브란스 근무자나 학교 영어 선생이었다.⁶³⁾ 윤치왕은 영국에서 유학중인 1920년부터 골프를 시작했는데, 귀국 후에도 골프를 즐겼다. 1928년경 정릉 서쪽에 9홀의 골프

54) 尹致旺의 박사학위논문이 京都帝國大學 교수회의를 통과. 매일신보 1936년 6월 3일자 7면.; 刀圭界의 喜消息, 英國서學位 얻고 醫博論文 또 通過, 世醫專의 尹致旺氏. 동아일보 1936년 6월 3일자 2면 1단.; 世醫專教授 尹致旺氏 醫博論文通過. 조선일보 1936년 6월 3일자 석간 2면 1단.; 新醫博, 尹致旺씨. 조선중앙일보 1936년 6월 3일자 2면 7단.; 尹致旺氏에게學位正式授與(東京). 동아일보 1936년 8월 6일자 2면 6단.; 세전 윤치왕씨 의박학위 인가. 조선중앙일보 1936년 8월 6일자 2면 10단.

55) 허스트의 송별회가 열린 1934년 4월 7일 윤치왕도 일본으로부터 귀국하여 참석하였다. 윤치호 일기 1934년 4월 7일자.

56) 윤치왕, 허신, 윤태권, 신필호: 産褥熱. 朝鮮醫報 6(2): 35-40, 1936.

57) 윤치왕, 윤태권, 신필호: 子癇. 朝鮮醫報 7(3): 128-129, 1937.

58) 妊娠惡阻 座談會. 朝鮮醫報 7(2): 73-74, 1937.

59) 윤치왕, 김석환, 윤태권: 結婚과 妊娠 座談會. 朝光 11월호, 1939, 203-211쪽

60) 同窓會名簿. 旭醫學專門學校同窓會, 1943, 12쪽.

61) 地方校友消息. 세브란스교우회보 25호 1936, 68쪽.; 尹致旺氏의 特志. 조선일보 1936년 2월 15일 석간 2면 3단.; 京都向上館 保育園에 三千五百圓 喜捨 조선 아동 보육기관에 대서광 京城尹致旺氏 美舉[肖]. 동아일보 1939년 2월 2일자 7면 10단

62) 윤치왕은 1940년대 초 伊東致旺으로 창씨개명했다. 遷至하는 國防獻金; 尹致旺氏 五百圓. 동아일보 1937년 8월 3일자 2면 9단.; 同窓會名簿. 旭醫學專門學校同窓會, 1943, 12쪽.

63) 南圃 尹致旺 박사, 내가 걸어온 길<10>. 후생일보 1977년 5월 3일; 서울의 上流社會, 入會金만 三百圓 드는 풀푸場. 삼천리 10권 1호, 1938년 1월호, 31쪽.

장이 있었고, 후에 특섬 쪽에 18홀 골프장이 만들어졌다. 당시 골프 동호인으로 구성된 경성골프구락부는 입회금만 300원으로 조선총독부 고관, 서울의 일류 명사, 지방의 대재벌 및 일부 외국인들이 회원이었다.⁶⁴⁾

윤치왕은 귀국 직후 의약품 공급을 위해 설립된 세브란스의약품상회(대표 오궁선)에서 박용균, 이영준과 함께 이사로 활동했다.⁶⁵⁾ 한편 자신이 직접 사업에 나섰는데, 1937년 11월 26일 함경남도 북청군 신포읍 토성리 69에 해산물 가공 판매가 목적인 남포수산이라는 주식회사를 차렸다. 사장에는 자신이 취임하고, 동생 치창과 부인을 이사로, 유억겸을 감사로 하였다.⁶⁶⁾ 이 사업은 그리 번창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윤치왕은 부동산 투자와 광산업에 손을 대었으나 사기꾼과 협잡꾼들에 의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해 버렸다.

6. 세브란스 교수직 사임과 구세단병원 원장 취임

사업 실패 등 여러 가지로 지쳐 있던 윤치왕은 1944년 세브란스의 교수직을 사임하였다. 지쳐버린 심신을 되찾아 보고 싶었던 윤치왕은 단양, 안동, 영동 등 당시 조용하고 깨끗한 신흥 도시를 찾아 여행하던 중 영동에 일본인 사카모도가 운영하는 구세단병원⁶⁷⁾을 방문하였다. 이 병원은

원래 1942년 구세군 담당 사관 전용섭의 노력으로 건립된 종합병원으로 65개의 침대가 있었는데, 이 병원에는 내과의사 한 사람만 있고 시설이 미비해 적자운영을 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윤치왕은 구세단장의 위임을 받아 이익금을 배분하기로 하고 병원장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얼마 되지 않아 입원실은 환자로 꽉 차게 되었고, 매일 7~80명의 외래 환자로 병원이 붐볐다.⁶⁸⁾

7. 해방과 서울대학교 제2부속병원장 취임

해방 이듬해인 1946년 4월 윤치왕은 서울로 올라와 한국은행 바로 뒤에 위치한 소공동 116번지 다게다 산부인과 병원 자리를 얻어 한양부인병원(漢陽婦人病院)을 개업하였다.⁶⁹⁾ 윤치왕은 해방 직후 건국의사회(建國醫師會)와 조선의학연구회(朝鮮醫學研究會) 등으로 난립되었던 의사회를 통합하여 중앙의사회를 발족시키자는 의료계의 여망에 따라 1947년 3월 각 시도 의사회장들의 발기로 열린 발기인회에서 23명으로 구성된 창립 준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었다.⁷⁰⁾ 이후 4월에 열린 창립 준비위원회에서 윤치왕은 심호섭, 백인제, 윤일선, 정기섭, 조동수, 정구충과 함께 7명으로 구성된 규약초안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협회 창립의 기초를 다지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47년 5월 10일 조선의학협회(朝鮮醫學協會)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⁷¹⁾

64) 南圃 尹致旺 박사, 위의 글.

65)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7년판.

66)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9년판.

67) 구세군은 1908년부터 한국에서 선교를 시작했는데, 일제는 1941년 강제로 구세단으로 개칭하였다. 이후 외국 사관들은 모두 강제 귀국시키고 일본인 사관 사카모토(坂本雷次)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1943년에는 전쟁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핑계로 한국 구세군도 강제로 폐쇄하였다.

68) 南圃 尹致旺 박사, 내가 걸어온 길<13>. 후생일보 1977년 5월 24일, 13면.

69) 康晉和: 大韓民國人事錄. 內外弘報社, 1949, 104쪽;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南圃 尹致旺 박사가回顧하는 仁術따라 風流 60年. 엠디, 종근당, 1981년 5월호, 20쪽.

70) 건국의사회는 이용설을 위원장으로 1945년 8월 17일 결성되었고, 조선의학협회는 1945년 9월 18일 윤일선을 위원장으로 발족하였다. 『매일신보』 1945년 8월 18일, 9월 18일 참조.

71) 회장은 심호섭이, 대의원회 의장은 김정상이 맡았다. 조선의학협회는 1948년 1월 15일 보건후생부에 의해 중앙의

한편 1946년 7월 13일 당시 미군정의 문교부장 유억겸, 차장 오친석에 의해 국대안이 발표되었고, 8월 22일 '국립 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군정법령 102호)이 공포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되었다.⁷²⁾ 이에 따라 국립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경성대학 의학과와 경성의학전문학교의 통합으로 만들어졌다. 해방이 되자 두 학교는 주요 구성원인 일본인이 쫓겨 나가면서 새로 한국인 교수들이 임명되었고, 국대안에 의해 같은 이름의 두 과가 한 과로 통합되면서 직원 사이의 알력도 없지 않아 혼란이 극심하였다. 윤치왕은 심호섭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의 권유로 합류하여, 10월 22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겸 제2부속병원장(소격동의 경성의학전문학교 병원)으로 임명되었으며 제1부속병원장(연건동의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병원)은 명주완이 임명되었다.⁷³⁾ 당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산부인과에는 두 강좌가 있었는데, 김석환과 윤치왕이 각각 맡았다.⁷⁴⁾

조선의학협회가 발족되던 1947년 5월 10일 윤치왕, 김석환, 신홍호, 설경성, 유흥진 등이 발기인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에 모여 조선산부인과학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윤치왕을 초대 회장으로 선임하였다.⁷⁵⁾ 이 학회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대한산부인과학회로 개칭되었다.

1946년 서울로 올라온 직후 윤치왕은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옛 경희궁 터의 일부를 서울중학교가 사용하는 것을 도운 적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교장 김원규의 요청으로 1946년 4월부터 서울중학교 후원회장을 맡아 1955년 5월까지 10년 동안 활동하였다.

8. 군의관 생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혼란한 와중에 윤치왕은 1949년 4월 1일 육군 군의관 중령으로 입대하였다. 그의 군번은 13351번이었다.⁷⁶⁾ 아버님이 군부대신을 역임했고, 숙부(윤영철, 윤보선 전 대통령과 윤일선 전 서울대학교 총장의 조부)가 안성토포사 육군 참장이었기에 군인이 된다는 것에 큰 정신적 부담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군에는 초대 의무감을 지낸 박동균⁷⁷⁾과 초창기 경비대 의무실장을 지낸 신학진⁷⁸⁾이 있었다.⁷⁹⁾

윤치왕은 1949년 4월 16일 육군본부의 의무감실에서 무보직으로 있으면서 미 고문관과 같이 군의관으로서 일할 모든 지식과 행동 등을 배웠으며, 7월 15일 대령으로 진급하고 7월 28일 제1육군병원 병원장에 임명되었다.⁸⁰⁾

사회로 인가를 받았으며, 1948년 9월 21일 대한의학협회로 개칭하였다. 해방 직후 의사단체들의 동향에 대해서는 대한의학협회, 대한의학협회85년사(1908-1993), 1993 참조.

72) 이길상 편, 『美軍政廳 官報』 Vol. No.1, 원주문화사, 373-389쪽.

73) 서울대학교병원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병원사, 1993, 286쪽. 윤치왕은 1948년 9월까지 부속병원장으로 재직했다.

74) 南圃 尹致旺 박사, 내가 걸어온 길<13>. 후생일보 1977년 5월 24일, 13면.

75) 한국민족대백과사전. 당시 의사면허나 전문의 면허번호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1974년 의사면허 갱신 때 3,206번이었고 산부인과 전문의는 77번이었다.

76) 육군본부, 윤치왕의 장교자력표.

77) 박동균은 1938년 경성고보를 졸업하고 1943년 만주국 군의학교를 졸업하였다. 해방 후 육군의무기지사령관, 국방부 병무국장 등을 역임한 후 1961년 6월 24일 예편하였다.

78) 신학진은 1934년 대구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만주국의 군의 중좌로 1941년 엔지육군병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1945년 만주의과대학 연구과를 수료하였다. 해방 후 통위부 의무국장, 육군본부 의무감 등을 거쳐 소장으로 예편하였다.

79)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南圃 尹致旺 박사가 回顧하는 仁術따라 風流 60年. 엠디, 종근당, 1981년 5월호, 20쪽

80) 육군본부, 윤치왕의 장교자력표; 南圃 尹致旺 박사, 내가 걸어온 길<13>. 후생일보 1977년 5월 24일, 13면.

1) 육군의무감 시절

윤치왕은 1949년 8월 18일 육군본부로 보직이 바뀌었다가 1950년 1월 3일부터 2월 22일까지 육군참모학교에 파견되었다가, 1950년 8월 17일 육군의무감으로 임명되어 1953년 9월 5일까지 3년여 동안 활동하였다.⁸¹⁾ 의무감으로서 윤치왕은 한국전쟁 중 육군 의무기구의 대폭 확대, 군의 요원의 안정적 확보, 의지창의 발족 및 의안부의 설치, 신의술의 도입(마취과 및 신경외과) 등 군진의학의 발전에 여러 가지 업적을 쌓았다. 그 사이 윤치왕은 1951년 3월 27일 육군 준장, 그리고 1953년 5월 4일 육군 소장으로 승진되었다.

(1) 육군 의무기구의 대폭 확대

미군들과 함께 일하면서 미국의 부대 편제에 각 사단에 의무대대가 있고, 그 대대 속에는 두 개의 치료 중대와 한 개의 후송중대가 있음을 보고 한국군에도 이와 같은 체제를 갖추고 싶었다. 그러나 작전 교육국의 반대로 윤치왕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국 반년이 되지 않아 한국전쟁이 터졌고, 윤치왕은 피난길에 대구의과대학을 울산으로 옮기면서 장비와 인원을 전부 군에 편입시켜 21육군병원을 창설하였다. 1951년 1.4후퇴 때에는 서울의대를 부산으로 옮기면서 그 장비와 인원을 전부 군에 편입시켜 36육군병원을 창설하였다. 이와 같이 윤치왕은 10개의 육군병원을 창설하였다. 이 병원들은 때로 여러 개의 분동을 가지기도 했다. 예를 들면 분산의 제5육군병원은 입원환자가 2만 명 이상일 때도 있었고, 기장의 제2육군병원은 거진, 울산 등에 분동을 두기도 했다. 이외에도 9개의 이동외과병원, 3개의 정양병원을 비롯하여 모두 45개의 의무부대를 창설하여 육군의 의무기구를 대폭적으로 확장하였다.⁸²⁾

(2) 군의 요원의 안정적 확보

의무감으로 취임한 후 한국의 의사들은 전부 군사훈련을 받아두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50명을 선발 부평의 군의학교에서 2주일간 훈련을 시킨 적이 있었다. 그러나 훈련 후 계급이 문제되어 더 이상의 훈련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일어나 모든 의과대학이 문을 닫아 군진의료에 문제가 발생하자 윤치왕은 의과대학 4학년 학생들은 소위로 임관시켜 군의관을 돕도록 했다. 그런데 나머지 학생들의 교육을 두고 각 대학 의과대학장들과 육군본부 군수국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다. 결국 윤치왕이 나서 본과 2, 3학년 학생들은 군복을 입은 채 각 자의 대학에 가서 공부하도록 했고, 예과 1, 2학년과 본과 1학년 학생들은 제대를 한 후 각기 학교에 가서 공부하도록 하였다.⁸³⁾

(3) 의지창의 발족과 의안부의 설치

이미 한국전쟁 이전부터 부상자들이 생겨 의수족이 필요한 환자들이 있었다. 당시 의수족은 과거 일본인의 의수족 점포에서 직공을 하면서 배운 사람들이 만들고 있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의지는 실용 가치도 없고 손가락 마디가 부러지기 일쑤였다. 한국전쟁이 터져 의수족이 필요한 환자가 급증하자 윤치왕은 동경의 유엔군사령부의 도움으로 동래의 31정양병원 안에 의지제작장을 만들었다. 또한 서대전의 미국 병원 군의관의 도움을 받아 3명의 치과군의를 훈련시켜 의지제작장 옆에 의안제작부를 창설하였다. 처음에는 민간인이 해야 할 일을 왜 군인이 하느냐로 시비가 걸렸지만, 결국 미국의 도움으로 의안제작을 할 수 있었으며 1,500명 이상에게 혜택을 주었다.⁸⁴⁾

81) 육군본부, 윤치왕의 장교자력표.

82) 南圃 尹致旺 박사, 내가 걸어온 길<14>. 후생일보 1977년 5월 31일, 13면.

83) 南圃 尹致旺 박사, 위의 글.

(4) 신의술의 도입 - 마취과 및 신경외과

전쟁의학에서 마취는 필수적인 분야이다. 그러나 한국에는 에비슨에 의해 세브란스에서 양성된 소수의 마취사가 있었을 뿐, 전문의가 없었고 따라서 미군이 준 마취기계를 사용할 줄 아는 의사는 거의 없었다. 이에 윤치왕은 한국 군의관들을 미군병원으로 보내 마취기 사용법을 배우게 했고, 일부를 미국에 파견해서 마취과를 전공하게 했다.

또한 전쟁으로 탄환이나 파편이 두개골 속으로 들어간 경우가 많아 한국 군의관을 미군 이동외과병원에 파견했고, 후에는 미국에 유학시켜 뇌신경외과를 배우도록 했다. 흉부외과 역시 미국에 가서 공부하도록 했다.⁸⁵⁾

2) 육군 군의학교 교장 및 병원기지사령부 사령관 시절

윤치왕은 1953년 9월 5일 마산의 육군 군의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어 몇 년 군의관 배출에 힘을 쏟기로 마음을 다졌다. 그런데 1954년 3월 15일 부산에 새롭게 창설되는 병원기지사령부의 사령관으로 발령이 났다.⁸⁶⁾ 기지사령부의 임무는 부산의 제5육군병원과 31정양병원, 그리고 울산의 제21육군병원을 감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의료기관을 감독하는데 의사는 단 한 사람뿐이었고, 장비와 인원도 뜻대로 충원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지만, 윤치왕은 기지사령관으로서 정형외과 병원의 창설을 방지했으며 의지제작창을 뜯어가는 것을 못하게 하였다.⁸⁷⁾ 또한 이 시기에 육군중앙 병리연구소 시설을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으로 이관시켜 1956년 11월 1일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개원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⁸⁸⁾ 육군병원기지사령부의 사령관으로 근무하던 중인 1954년 6월 5일 윤치왕은 경남지구 위수사령관으로 임명되어 1955년 1월 1일까지 임무를 수행했다.

1955년 4월 4일 205병기대대부, 그리고 6월 20일에 교육총본부로 파견되었던 윤치왕은 1956년 11월 16일 지원 역할을 하는 육군 제2군관구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⁸⁹⁾ 그러나 그를 사령관에 임명한 것에 대해 국회 등에서 반발이 일어나 윤치왕은 임명 6개월 만인 1957년 5월 20일 제2군관구 사령관의 자리에서 물러났고, 1957년 12월 10일 육군본부로 보직 발령을 받았다.⁹⁰⁾

윤치왕은 1959년 3월 19일부터 10년 동안의 군대 생활을 정년 퇴역했는데, 대한민국의 창군 이래 정년 퇴역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⁹¹⁾ 10년 동안의 군대 생활 중 윤치왕은 여러 상훈을 포상받았다. 1951년 1월 2일 4등무공훈장을, 1952년 6월 25일에는 공비토벌기장 및 6.15중군기장을 받았으며, 1952년 12월 18일 무성을지훈장을 받았다.⁹²⁾

3) 윤치왕과 미국 군진의학회

1949년 12월 15일 미국 군진의학회는 당시 군의감 윤치왕 대령에게 명예회원기장을 수여하였다.⁹³⁾ 이것은 아시아인에게는 최초로 수여된 것이었다. 이후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정세가 비교적 안정된 1952년 11월 윤치왕은 미국의 군진의학회에 참석

84) 南圃 尹致旺 박사, 내가 걸어온 길<15>. 후생일보 1977년 6월 7일, 13면

85) 南圃 尹致旺 박사, 내가 걸어온 길<18>. 후생일보 1977년 7월 5일, 13면

86) 육군본부, 윤치왕의 장교자력표.

87) 南圃 尹致旺 박사, 내가 걸어온 길<18>. 후생일보 1977년 7월 5일, 13면

88) 개원 경위. P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http://www.pnuh.co.kr/about-pnuh/about-pnuh-3-popup.htm>

89) 육군본부, 윤치왕의 장교자력표.

90) 南圃 尹致旺 박사, 내가 걸어온 길<18>. 후생일보 1977년 7월 5일, 13면.

91) 最初の 停年退役. 尹致旺 小將에. 조선일보 1959년 3월 21일자 석간 3면 5단.

92) 육군본부, 윤치왕의 장교자력표.

93) 名譽會員 記章 授與 美 軍醫協會서 尹致旺 大領에게[寫]. 동아일보 1949년 12월 17일자 2면 7단.

하였다.⁹⁴⁾ 그는 미국의 육군병원을 시찰하고 자신의 주선으로 미국에서 훈련받고 있는 군의관들을 격려하였다. 이 방문에서 윤치왕은 11월 22일 각국의 군의관 대표 21명의 일원으로 트루먼 대통령을 접견하였고, 12월 7일 귀국하였다. 윤치왕은 1955년 11월에도 미국 군진의학회에 참석하였다.⁹⁵⁾

9. 군의관 제대 후의 활동

퇴역 후 윤치왕은 다방면으로 활동하였다. 4·19 직후인 1960년 7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면서 1961년 5월 8일 이 단체가 세계재향군인회에 가입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⁹⁶⁾ 또한 1960년 7월부터 1964년 4월까지 한영협회(韓英協會)의 회장으로 활동했다.⁹⁷⁾

한편 의료계에서는 1960년 10월 대한의학협회의 제12대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나, 며칠이 안 되어 회관이 불타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취임 1달 후에 열린 임시총회에서 윤치왕은 회장직을 사퇴하였다. 대신 이사장으로서 당선되었으나 이마저도 반년 만에 사퇴하였다. 1962년 7월에는 서울특별시 의사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⁹⁸⁾

윤치왕은 1963년 8월 12일 경기도 인천시 북구 부평동에 윤산부인과의를원을 개업하였으나,⁹⁹⁾ 노후에는 진료소를 큰 아들 도선에게 맡기고 원로 의사들의 모임에 적극 참여하였다. 우선 65세 이상의 원로의사들로 구성된 인수회(仁壽會)에 참석했는데 최고 연장

자로서 이용설, 정구충 등과 동갑이었다. 인수회는 1972년 10월 17일 창립되었으며,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의료계 발전과 노인복지, 의료에 관한 문제의 연구에 그 목적을 두었다. 또한 서울YMCA원로 모임인 계묘구락부(癸卯俱樂部)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윤치왕은 감기 기운이 있어 큰 아들 도선의 집에 가 있다가 1982년 12월 21일 오후 10시 30분 운명을 달리했다.¹⁰⁰⁾ 12월 23일 여의도 수정아트 자택에서 거행된 영결식에는 문태준 의협회장을 비롯하여 신학진 대한의학협회 자율정화추진위원회 위원장, 계묘구락부 및 인수회 대표 등 다수의 친우 친진들이 참석하였고, 장지는 충청남도 아산군 둔포면 석곡리 선영이었다.¹⁰¹⁾

맺음말

윤치왕은 다른 초창기 한국 의료인과 달리 의학을 영국에서 학습하였다. 그의 영국 유학에는 한국 개신교의 영향력이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그의 형인 윤치호가 1911년 소위 105인 사건으로 투옥되자 그는 중국 사관학교 입학 을 위해 중국으로 떠났다. 하지만 중국에서 만난 김규식이 영국 유학을 제의하면서 한국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 언더우드 를 소개해주자 그의 후원을 받아 영국으로 떠났다. 간접적이지만 한국의 서양의학 수용 경로 중 하나인 의료선교사를 통한 경로에 근접한 행보라고 할 수 있다.

94) 尹致旺 軍醫官 「트」 大統領 接見(위싱턴). 동아일보 1952년 11월 24일자 2면 10단; 尹致旺 陸軍醫務官 歸國. 동아일보 1952년 12월 9일자 2면 11단.

95) 南圃 尹致旺 박사, 내가 걸어온 길<16>-<17>, 후생일보 1977년 6월 21일-6월 28일

96) 南圃 尹致旺 박사, 내가 걸어온 길<18>-<完>. 후생일보 1977년 7월 5일, 7월 12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1960년 7월 13일 전국 대의원대회를 겸한 결성식을 가졌다. 초대회장은 원래 윤치왕을 추대기로 되어 있었으나, 투표 결과 이기건 예비역 육군 준장이 당선되었다. 향군 50년사. 제3장 조직 정비기(1960년-1969년). <http://ikva.or.kr>

97) 南圃 尹致旺 박사, 내가 걸어온 길<完>. 후생일보 1977년 7월 12일.

98) 南圃 尹致旺 박사, 위의 글.

99) 大韓民國人物聯鑑. 靑雲出版社, 1967, 423쪽.

100) 尹致旺박사 別世. 의협신보 1982년 12월 23일 3면.

101) 尹致旺翁 別世. 醫師新聞 1982년 12월 23일 5면; 尹치왕씨 別世. 후생신보 1982년 12월 27일.

1919년 3월 영국 글래스고대학교 의학부에 입학한 윤치왕은 1925년 10월 그 학교를 졸업하면서 의학사 학위를 받았고, 동시에 영국 의사면허증을 받았다. 윤치왕이 영국에 유학하는 동안 윤치호는 그에게 졸업 후 세브란스에서 일할 것을 권하였다. 윤씨 집안과 세브란스의 에비슨이 가졌던 오랜 인연 때문이었다.

윤치왕은 1927년 11월부터 세브란스에서 강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그의 첫 근무 부서는 외과였다. 하지만 내부 경쟁을 염려하여 산부인과로 부서를 옮겼고, 허스트 교수와 함께 산부인과의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진료 및 강의 시간에 허스트의 통역을 전담하기도 하였다. 1930년 산부인과 분야의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 3년 예정으로 영국으로 떠났던 윤치왕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1931년 봄 예정을 앞당겨 귀국하였다.

세브란스의 일본 문부성 지정을 위해 교수들의 일본 박사학위가 필요한 상황에서 윤치왕은 1933년 일본으로 떠나 1936년 8월 교토제국대학 산부인과학 교실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산욕열, 자간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던 윤치왕은 1941년 4월부터 1942년 8월까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의 부속병원장을 맡으면서 행정가로서 활동하기 시작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사업 실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1944년 세브란스의 교수직을 사임하였다.

해방 후 윤치왕은 1946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겸 제2부속병원장으로 활동하는 동시에 통합된 의사회의 성립을 위해 노력하여 1947년 조선의학협회가 발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조선의학협회의 발족과 동시에 조직된 조선산부인과학회에서 그는 초대 회장에 선임되었다. 1949년

4월 육군 군의관 중령으로 입대한 윤치왕은 그해 7월 대령으로 진급하였고 같은 달 제1육군병원 병원장에 임명되었다. 1950년 8월 육군의무감으로 임명된 윤치왕은 1953년 9월 육군 군의학교 교장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육군 의무기구의 대폭 확대, 군의 요원의 안정적 확보, 의지창의 발족 및 의안부의 설치, 신의술의 도입(마취과 및 신경외과) 등 군진의학의 발전에 여러 가지 업적을 쌓았다.

1953년 9월 육군 군의학교 교장, 1954년 3월 병원기지사령부 사령관, 1954년 6월 경남지구위수사령관, 1956년 11월 육군 제2군관구 사령관을 역임한 윤치왕은 1959년 3월 정년 퇴역을 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창군 이래 최초의 정년 퇴역이었다. 퇴역 후 그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부회장, 대한의학협회 회장, 대한결핵협회 회장으로 활동하였고, 1963년 8월 경기도 인천시 북구 부평동에 윤산부인과의원을 개업하기도 하였다.

윤치왕의 업적은 대체로 산부인과와 군진의학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산부인과 분야에서 윤치왕은 의료선교사의 뒤를 이어 세브란스의 산부인과학 교실을 담당함으로써 한국에 산부인과학이 정착되는데 기여를 하였다. 군진의학의 경우 군의제도의 정착과 마취과, 신경외과 등 새로운 학문분야의 개척 등의 업적을 달성하였다. 특히 군진의학은 식민 지배를 거치는 동안 한국인이 접근할 수 없는 분야였다는 점에서 윤치왕의 활동이 군진의학의 성립과정에서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색인어 : 윤치왕, 산부인과, 군진의학, 글래스고대학교,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투고일 2008. 11. 4

심사일 2008. 11. 7.

심사완료일 2008. 12. 14.

윤치왕 약력

본 적: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195번지

1895년	2월 16일	출생
1906년		이모희와 결혼
	10월	개성 한영서원 입학
1909년경		기독교 청년회관 중학교 일어후과 입학
1910년	6월	기독교 청년회관 중학교 일어후과 졸업
1911년	3월	관립 수원농림학교 입학
1912년		관립 수원농림학교 자퇴
1913년	9월	중국으로 망명
1914년	3월	영국 유학을 위해 서울로 돌아옴
	4월초	영국 유학을 위해 북경 출발
1919년	3월	영국 글래스고대학교 의학부에 입학
1925년	10월 19일	동 의학부를 졸업하고 영국 의사면허증을 받음
1927년	5월 21일	영국 출발
	8월 21일	부산항 도착
	11월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서 근무 시작 일본 면허증 받음(57940번)
1930년	6월 6일	연수를 위해 영국으로 출발
1931년	4월 7일	귀국
1933년	3월 28일	교토제국대학 의학부 산부인과학교실로 떠남
1936년	4월	귀국
	6월 1일	교토제국대학 교수회의에서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됨
	8월 5일	일본 문부성으로부터 의학박사의 학위를 받음
1941년	4월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장 취임(1942년 8월까지)
1944년	여름	영동 구세단병원 원장 취임
1946년	4월	서울 소공동에 한양부인병원 개업
		서울중고등학교 후원회 및 사친회 회장(1955년 5월까지)
	10월 22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의 교수(1949년 3월까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제2부속병원장 (1948년 9월까지)
1947년	3월	조선의학협회의 창립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됨
	4월	조선의학협회의 규약초안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됨
1949년	4월 1일	육군 입대(중령)
	4월 16일	육군본부 의무감실 근무
1949년	7월 15일	대령 진급
	7월 28일	제1육군 병원장 취임

1950년 8월 17일	육군의무감 취임
1951년 3월 27일	육군 준장 진급
1952년 11월	미국 군진학회 참석
1953년 5월 4일	육군 소장 진급
9월 5일	육군 군의학교 교장
1954년 3월 15일	육군병원기지사령관
6월 5일	경남지구 위수사령관 겸임(1955년 1월 1일까지)
1956년 11월 16일	육군 제2군관구 사령관 (1957년 5월 20일까지)
1959년 3월 19일	정년으로 퇴역
1960년 7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부회장 (1961년 5월까지)
7월	한영협회 회장(1964년 4월까지)
10월	제12대 대한의학협회 회장(1960년 11월까지)
11월	대한의학협회 이사장(1961년 3월까지)
1961년 1월	한국이민협회 부회장(1962년 5월까지)
9월	대한결핵협회 회장(1963년 4월까지)
1962년 7월	서울특별시 의사협회 회장
1972년 10월 17일	인수회 회원
1982년 12월 21일	서거

수 훈

1949년 12월 15일	미국 군진의학회에서 명예회원 기장 수여
1950년 12월 30일	금성화랑무공훈장
1952년 5월 29일	국방부장관 공로표창장
1952년 7월	적십자 기장
1952년 12월 10일	무성을지무공훈장
1953년 9월 11일	육군참모장 공로표창장
1955년 6월 27일	미국공로훈장(Legion of Merit)
1959년 4월 8일	육군참모총장 공로표창장

윤치왕 박사학위 청구 논문

Yun TW: A case of development of cancers, in the corpus uteri, the cervix uteri, and the stomach, and an ovarian cyst with intervals of a few years. Jap J Obstet Gynecol

Ozaki M, Oshima M, Yun TW: A case of separation of retina complicating the kidney of pregnancy. Jap J Obstet Gynecol

Yamabe A, Yun TW: A case of spina bifida diagnosed during pregnancy. Jap J Obstet Gynecol

Yun TW: A case of pregnancy in the rudimentary horn of uterus. Jap J Obstet Gynecol

Yun TW: A study on the effects caused by each organ pressed juice, upon the respective organ, administered extra orally. Part I. On the histological changes in the kidney, due to the hypodermic injections of each pressed juice of kidney liver, spleen, testes and heart. Jap J Obstet Gynecol

Yun TW: A study on the effects caused by each organ pressed juice, upon the respective organ, administered extra orally. Part II. On the histological changes in the heart, due to the hypodermic injections of each pressed juice of kidney liver, spleen, testes and heart. Jap J Obstet Gynecol

Yun TW: A study on the effects caused by each organ pressed juice, upon the respective organ, administered extra orally. Part III. On the histological changes in the liver, due to the hypodermic injections of each pressed juice of kidney liver, spleen, testes and heart. Jap J Obstet Gynecol

Yun TW: A study on the effects caused by each organ pressed juice, upon the respective organ, administered extra orally. Part IV. On the histological changes in the spleen, due to the hypodermic injections of each pressed juice of kidney liver, spleen, testes and heart. Jap J Obstet Gynecol

Yun TW: A study on the effects caused by each organ pressed juice, upon the respective organ, administered extra orally. Part V. Observations on the functional conditions of the rabbit's heart and uterus, with the pressed juice injections of the heart and uterus. With the discussion on the parts 1, 2, 3 & 4 and a summary for all the parts. Jap J Obstet Gynecol

= Abstract =

Life and Medical Activities of Yun Ti Wang

Park Hyoung-woo,* Hong Jeong Wan,# Park Yunjae#†

Yun Ti Wang studied medicine in England, different from other Korean medical doctors in early days. Yun, who entered medical school at Glasgow University in England in March 1919, graduated with a Bachelor of Medicine in October 1925, along with an England medical license. Yun began working as an instructor at Severance Medical College from November 1927, and received Doctor of Medicine from the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at Kyoto Imperial University in August 1936.

After the Liberation, Yun began working as a faculty member at the medical school at Seoul University, and he also worked as a Chief of the Second Medical Clinic of the school from 1946. Yun made a great effort in order to build an integrated committee, eventually contributing to the launching of Joseon Medical Associates in 1947. He was also elected as a first president at Joseon Obstetrics and Gynecology Associates, which was organized at the same year as the Joseon Medical Associates.

Yun entered military as an army surgeon in April 1949 and has worked there until he was appointed as a principal at the Army Medical School in September 1953. His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military medical services include the following: expansion of medical facilities in army, stable system of workforce in military medical service, launching of Medical Aid and establishment of Department of Medical Care, and introduction of new medical technologies in anesthesiology and neurosurgery, etc.

The career of Yun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he field of gynecology and military medical services. In the gynecological field, Yun contributed to the settlement of obstetrics in Korea, by taking in charge of the obstetrics class at Severance following medical missionaries. As for the military medical services, he has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military medical system as well as to the opening of new academic areas. The impact of his activities on the establishment of military medical services is especially significant, since it was a field that no Korean citizens had access to during the colonization era.

Key Words : Yun Ti Wang, Obstetrics and Gynecology, Military Medicine, University of Glasgow, Severance Medical Colleg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 *Department of Anatomy,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Yonsei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